

01 교회소식

하나님의 사랑, 랜선을 타고

권능의 손수건 기도로 각색 질병이 치료되고 마음의 소원을 응답받는 등 축복이 넘쳤던 '중남미, 인도 랜선 은사집회'.

02 생명의 말씀

'십자가의 도' 시리즈

참 자녀를 얻고자 인간 경작을 계획하신 하나님께서는 토지 무르기 법칙을 좇아 비밀한 가운데 인류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다.

03 기획특집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주님

믿음으로 기도받을 때 우울증, 각종 몸의 통증이 치료되고 시력이 회복되는 등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

04 간증

“기도받을 때 온몸이 뜨거웠어요”

랜선으로 기도받은 뒤 성령의 불을 체험하고 갖가지 질병과 장애 등이 치료돼 기쁨으로 간증하는 중남미, 인도 성도들.

만민뉴스

제940호 2021년 3월 28일(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랜선을 타고 불같은 성령의 역사 나타나

이복님 원장 초청 '중남미, 인도 랜선 은사집회'



만민기도원 이복님 원장을 강사로 중남미, 인도 '랜선 은사집회'가 각각 지난 3월 8일과 14일에 줌(zoom)을 통해 생중계로 진행되었다.

강사 이복님 원장의 설교 후 찬양과 기도의 시간을 통해 성도들은 성령의 역사 가운데 회개하고 결단함으로 충만함을 받았으며, 당회장 이재록 목사가 기도해 준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으로 수많은 성도가 갖가지 질병이 치료돼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렸다.

지난 3월 8일 월요일 오전 9시(현지 시각 주일 오후 7시)에 시작한 '중남미 랜선 은사집회'는 콜롬비아, 페루,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온두拉斯,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파나마, 볼리비아, 브라질, 에콰도르, 칠레, 멕시코, 과테말라, 코스타리카, 파라과이, 벨리스, 도니미카 공화국, 미국, 캐나다,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총 23개국의 성도들이 은혜를 사모하여 실시간 화상 및 JBN TV를 통해 참석했다.

개인이나 가족 또는 모임이 가능한 지성전 단위로 줌(zoom)을 통해 320여 곳, 유튜브 생방송으로 160여 곳 총 480여 곳에서 동시 접속하여 진행되었으며, 온두拉斯 JBN TV(사장 에스테반 한달)가 우리 교회에서 인터넷을 통해 송출한 줌(zoom) 영상을 받아 실시간으로 온두라

스 및 중남미에 송출하였다.

은사집회 시 당회장 이재록 목사가 기도해 준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으로 이복님 원장이 기도해 줌으로 다발성 척추 경화증, 우울증, 발婢 골절, 척추 디스크, 탈장, 편두통, 관절염, 위염, 치질, 코로나바이러스 후유증, 호흡 곤란, 헤르페스, 각종 통증 등을 치료받고 시력이 회복되어 많은 사람이 간증으로 영광 돌렸다.

지난 3월 14일 주일 오후 7시(현지 시각 오후 3시 30분)에는 '인도 랜선 은사집회'가 진행되었는데 인도, 파키스탄, 네팔, 영국, 캐나다 등 360여 곳에서 사모하는 성도들이 줌(zoom)과 유튜브(GCNTV HINDI)를 통해 실시간 개인, 가족, 그룹으로 참석하였다.

집회 후에는 은혜로운 간증들이 끊이지 않아 감동의 시간이 되었는데, 특별히 '2019 만민하계수련회' 때 시공을 초월한 권능의 손수건 기도로 혼수상태에서 깨어난 아쿠쉬 넬슨 성도(사진)가 줌(zoom) 미팅에 참여해 간증함으로 큰 기쁨과 행복을 주었다.



▲ 2019년 당시 기도를 받고 혼수상태에서 깨어나 건강을 회복한 아쿠쉬 넬슨 성도가 '인도 랜선 은사집회'에 참여해 간증하고 있다.

2019년 당시 아쿠쉬 넬슨 성도는 교통사고를 당해 왼쪽 편마비가 왔고 의식이 전혀 없는 식물인간과 같은 상태였다. 그의 아내는 치료가 불가능한 남편이 기도라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인터넷을 검색하던 중 'GCNTV HINDI' 채널의 '만민하계수련회' 생방송에서 이수진 목사가 권능의 손수건으로 기도하는 장면을 발견해 남편 위에 기도를 받았다. 그러자 놀랍게도 그 순간 아쿠쉬 넬슨 성도는 의식이 깨어나고 왼쪽 몸의 감각이 살아났다. 하지만 편마비로 보행이 쉽지 않아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 집회 시 화면으로 본 그의 모습은 몰라볼 정도로 건강이 회복되어 있었다.

이 밖에도 이복님 원장의 권능의 손수건 기도를 통해 혹이나 종양이 사라지고 통증으로 고통받던 많은 사람이 치료되었을 뿐 아니라, "20년간 고통받던 질병에서 해방되었다", "딸의 간질이 치료되었다" 등 눈물의 간증이 이어졌다.

한 성도는 고령의 노모가 통증으로 걷지 못했는데 기도받은 뒤 통증 없이 일어나 걷는 모습을 줌(zoom)을 통해 실시간으로 보여 주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의 구세주인가(1)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행 4:12)

사람이 불행을 체험해 보지 않으면 행복에 대해서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슬픔과 고통을 겪고 불행을 체험해 보아야 참된 행복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고 자신이 행복하다는 사실을 중심에서 감사할 수 있지요.

이처럼 상대성을 알게 하시고자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두셨는데, 이 선악과는 생명나무 실과와 함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서로 상대성을 가진 이 두 종류의 나무를 같이 두시고, 아담에게 각각에 대해 설명해 주셨지요. 생명 과일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과일이지만 선악과는 사망을 주는 과일임을 알려 주셨습니다.

사망이 어떤 것인지, 사망의 고통이 어떤 것인지를 세세히 설명해 주시고 그런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아담이 자유의지 가운데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하셨지요.

죄악과 사망을 겪어보지 못한 아담은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신 내용을 명심할 수 없었고 결국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고 밀았습니다. 그 결과 “정녕 죽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곧 영이 죽어서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지고 원수 마귀 사단의 종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로 인해 그의 모든 후손 역시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망의 길로 가게 된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일까요?

1. 원수 마귀에게 넘겨준 아담의 권세

누가복음 4장 5~6절에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했습니다.

여기에서 마귀가 한 말을 보면, 이는 누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권세를 원수 마귀에게 넘겨주었기 때문에 자기도 임의대로 누군가에게 넘겨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천하만국을 다스리는 모든 권세와 영광이 어떻게 원수 마귀에게 넘어간 것일까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말씀했습니다. 이같이 첫 사람 아담은 원래 하나님께로부터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며 정복하는 권세를 받아 만물의 영장으로서 산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의 사주를 받은 뱀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먹는 죄를 범한 뒤부터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드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죄에 순종하면 죄의 주관자인 원수 마귀 사단의 종이 되어 사망의 길로 가고, 의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불순종의 죄를 범한 첫 사람 아담은 죄에게 순종함으로 어둠의 주관자인 원수 마귀의 종이 되어 하나님께 받은 모든 권세를 빼앗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종의 권세는 주인에게 귀속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만물을 주관하는 권세를 넘겨받은 마귀는 아담의 범죄 이후 죄의 종이 된 인류를 점점 더 죄악으로 물들게 합니다. 세대가 지날수록 사람들의 마음은 악해지고 이 세상에는 죄악이 관영하게 되었지요.

이렇게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원수 마귀는 질병과 가난, 재앙, 눈물, 슬픔 등 고통을 가져다주었고 결국 그들을 영원한 사망인 지옥으로 끌어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담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써 온 인류가 온갖 시험과 환난을 가져다주는 원수 마귀의 종노릇을 하면서 사망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은 사람이 지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상대성을 체험하며 경작을 잘 받은 후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데 있습니다. 그러기에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줄을 이미 아신 하나님께서는 맨 처음 인간 경작을 계획하실 때부터 죄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길도 마련해 두셨지요. 그 길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2. 죄를 속량할 수 있는 영계의 법칙

그러면 인류는 어떻게 해야 원수 마귀에게서 해방되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더러는 하나님께서 창조주 이시고 사랑이 많은 분이니 모든 죄를 무조건 용서해 주면 되지 않겠느냐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영계의 법칙에 따라 질서를 좇아 행하시는 공의로운 분입니다(고전 14:40).

영계의 법에는 죄인에게 벌을 가하는 법, 곧 ‘죄의 삐은 사망’이라는 법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그 죄를 속량할 수 있는 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 사람 아담이 죄로 인해 원수 마귀에게 넘겨준 권세를 회복하려면 죄를 속량할 수 있는 영계의 법칙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공의 가운데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대신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아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이지요. “죄의 삐은 사망”이라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사망의 형벌을 감당하심으로 죄인들의 죄값을 치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보혈의 공로로 죄 사함을 받으므로 사망의 형벌에서 벗어날 수 있고, 주님을 영접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더 이상 원수 마귀가 주관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에 많은 위인과 많은 종교가 있는데 왜 꼭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가?”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 외에는 세상 어떤 사람도 구세주가 될 수 있으며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있을까요? 바로 영계의 법칙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도 법이 있듯이 영의 세계에도 법칙이 있습니다.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정성구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홍승 55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2,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구로남초등학교 방향, 도보 10분 거리
:: 시내버스
• 5536, 5615번(교회앞 하차)
• 503, 504, 51, 632, 5618, 5619, 5626, 5630, 5712, 5714번(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 마을버스
• 금천 07번(교회앞 하차)
::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문의 : 차량국(02)818-7391~3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요식업) 예배	11:00 PM
금요찰야예배	11:00 PM
수요예배	7:00 PM
화요찬양예배 [청년·가나안]	8:30 PM
수요찬양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4:00 PM
다니엘철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면 정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송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5609

우리은행 1002-459-392191
(예금주 박정길)

사람이 사망으로 가는 것도, 죄 사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는 것도 이 영계의 법칙에 의한 것이지요. 아담이 범죄한 후 인류가 사망으로 가게 된 것도 ‘죄의 삶은 사망’이라는 영계의 법칙 때문이었습니다. 범죄함으로 원수 마귀 사단의 종이 된 것도 ‘사람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는 영계의 법칙에 의한 것 이었지요. 마찬가지로 사람이 사망이라는 형벌에서 놓여 구원받을 수 있는 것도 영계의 법칙에 따라야 합니다.

과연 사망에 이르는 사람의 죄를 속량하여 첫 사람 아담이 원수 마귀에게 넘겨준 권세를 회복할 수 있는 법칙은 무엇일까요? 이는 토지에 관한 법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이 법을 좋아 비밀한 가운데 만세 전에 인간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3. 토지 무르기 법칙에 따른 인간 구원의 길

레위기 25장 23~25절에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너희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얼마를 팔았으면 그 근족이 와서 동족의 판 것을 무를 것이요” 말씀합니다. 즉 토지는 모두 하나님의 소유이므로 영영히 팔지 말 것이며, 가난하여 토지를 팔았다 하더라도 합당한 규정에 따라 근족이나 본인이 다시 무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있도록 하는 것이 ‘토지 무르기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한 하나님의 법을 준수하여 다른 나라 토지법과는 달리 토지를 매매 할 때에 영영 팔 수 없도록 토지 매매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어떤 경로로 팔고 사는지와 함께 나중에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토지 무르기의 내용을 상세히 적은 2부의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의 도장을 찍고 증인들을 세우지요. 그 후 계약서 한 부는 법과 규례 대로 인봉하여 성전 창고에 보관하고, 다른 한 부는 성전 입구에 펼쳐 놓습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근족이 와서 대신 토지를 무를 수 있게 하고, 근족 중에 무를 사람이 없으면 본인이 부를 쌓아 힘이 있을 때 다시 사서 무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토지 거래에 관한 법으로서 단순히 토지에 대한 법이 아니라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에게도 적용되는 영계의 법칙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했고, 23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 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했습니다. 이처럼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원수 마귀의 손에 넘어갔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법

칙과 팔았던 토지를 다시 무르는 법칙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토지가 하나님의 소유인 것처럼 아담과 그의 권세 또한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영영히 팔 수 없도록 규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했던 아담이 범죄하여 원수 마귀에게 넘겨질 때 하나님과 원수 마귀 사이에 계약된 법칙이므로 비록 아담이 원수 마귀의 종이 되고 모든 권세를 넘겨주었다 해도 장차 토지 무르기 법칙에 합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나타나면 원수 마귀는 돌려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토지를 무르는 법칙 안에 죄인 된 인류가 구원받을 길이 제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자녀를 얻고자 인간 경작을 계획하신 하나님께서는 죄인 된 인류가 구원받을 길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것도 아시고 구세주로 합당한 사람이 필요할 것도 아시므로 그 조건에 맞는 사람을 예비해 두셨지요. 토지 무르기 법칙에 의해 인류를 구원하기에 합당한 조건을 갖추신 유일한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지 예정 가운데 사랑으로 이끄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깨달아 여러분의 삶 속에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통, 여드름, 위경련이 치료되었어요”

펠릭스 아레나스 (16세, 콜롬비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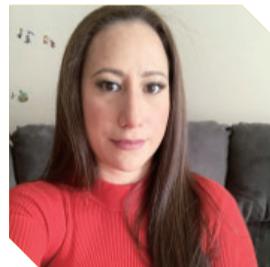
은사집회 당시 성령 충만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저는 심한 두통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더욱 열심히 기도하니 온몸이 매우 뜨거워지면서 많은 땀이 흘렀고, 기도가 끝났을 때에는 두통이 거의 사라졌지요.

그 뒤 강사님께서 환자기도를 해 주실 때 저는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기도를 받았습니다. 등의 여드름 문제와 위경련, 그리고 힘든 배변에 대해 응답받고 싶었지요.

저는 기도를 받은 뒤 등의 여드름이 확연히 좋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위경련은 물론 배변의 문제도 해결되어 지금은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몸의 모든 통증이 사라지고 삶에 생기가 넘칩니다”

에벨링 라모스 (36세, 미국)



오래전부터 제게는 호르몬 이상으로 인해 많은 통증과 두통, 위장 문제, 그리고 설명하기 어려운 피로감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런데 은사집회 시 기도 받을 때 성령의 불이 임해 온몸이 뜨거워진 뒤로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통증이 사라졌으며, 몸이 가볍고 힘이 주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지요. 아침 일찍 일어나도 피곤하지 않고 생기가 넘칩니다. 이것은 제게 너무나도 놀라운 일입니다.

저는 녹화된 은사집회 방송을 다시 보면서 또 한 번 성령의 불을 체험하였고, 이후 위장이 편안해지고 온몸에 더욱 힘이 주어졌습니다.

“우울증을 치료받았습니다”

파완 (48세, 인도)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이 오고 힘듦이 지속되다 보니 우울증까지 생겨 자살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복부도 감염돼 통증으로 음식을 먹을 수 없었고, 걷기조차 힘들었지요.

유튜브를 통해 환자기도를 찾던 중 GCNTV HINDI 채널의 ‘이재록 목사님 환자기도’를 발견하여 기도를 받았습니다. 이때 아내도 함께 기도를 받았는데, 아내의 복부 통증이 사라지는 체험을 하였지요.

은사집회 시 강사 이복님 원장님의 기도를 받을 때에는 제 몸이 진동하였고 온몸이 뜨거웠습니다. 그 뒤 복부 통증이 사라져 음식도 잘 먹고 잘 걸을 수 있게 되었지요. 물론 우울증도 치료돼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합니다.



‘랜선 은사집회’에 참여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고 있는 강사 이복님 원장



“시력이 회복되어 잘 보입니다”

루시야 당 (25세, 인도)



저는 장티푸스 열병으로 인해 시력이 약해졌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에 알게 된 GCNTV HINDI 채널을 통해 주일예배를 드리면서 은사집회 소식을 듣게 되었지요. 집회를 준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왜 구세주가 되시는지, 왜 질병이 오고 어떻게 치료받을 수 있는지, 죄는 무엇인지 등 명쾌하게 전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들으며 많은 회개와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은사집회 시 강사 이복님 원장님께서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으로 환자를 위한 기도를 해 주실 때에는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라고 간구하였지요. 그 뒤 놀랍게도 시력이 회복되어 이제는 잘 보입니다.

랜선으로 기도받은 뒤 성령의 불이 임하고 치료되었습니다!

“말을 더듬던 아들이 이제는 말을 잘합니다”



미숙아로 태어난 아들 이사이(3세)는 언제부턴가 말을 더듬고 문장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의사는 뇌 검사를 받아보라고 권했지만, 저는 믿음으로 모든 문제를 이기고자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중 은사집회 소식을 듣고 간절한 마

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하게 되었지요.

집회 당일, 저는 강사 이복님 원장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마음의 성결을 이루어야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아들을 치료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였지요. 이후 강사님께서 환자기도를 시작하

셨을 때 저는 아이를 꼭 안고 손을 얹어 기도를 받았습니다.

집회가 끝난 뒤 이미 아이는 잠든 상태라 확인하지 못했고, 다음 날 아이의 상태를 살펴보았는데 놀랍게도 아이가 문장을 정확하게 표현하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둘세 나바 (28세, 멕시코)



저는 2년이 넘게 폐에 알레르기 증상이 있어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음식을 먹거나 마시면 기침이 나고 숨쉬기가 힘들었으며 하루에 4, 5차례 호흡 곤란이 와서 항상 약과 흡입기를 휴대해 대비해야만 했지요.

그러던 중 유튜브를 통해 GCNTV HINDI 채

널을 알게 되어 만민중앙교회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당회장님의 환자기도를 받으면서부터는 하루에 흡입기 사용 횟수가 2, 3차례로 줄어들었지요.

얼마 전, 은사집회 소식을 듣고 응답받을 기회라 생각하니 너무 기뻤습니다. 사모함으로

준비하며 줌(zoom)을 통해 참석하였지요.

강사 이복님 원장님께서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으로 환자를 위한 기도를 해 주실 때 회개하며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뒤 친물을 마셔도 전혀 문제가 없고, 호흡이 편안해져 이제는 약과 흡입기가 필요 없습니다.

“호흡기 알레르기로 휴대했던 약과 흡입기가 필요 없게 됐어요”

시타 마쉬 (33세, 인도)



오래전부터 제 목에 틱장애가 있었습니다. 제 의지와 상관없이 갑자기 목이 움직일 때가 있었고, 이러한 현상이 일상에서 자주 반복될 때는 매우 불편했습니다.

저는 은사집회 시 치료받고자 다니엘철야나 개인 기도를 하며 마음 다해 준비하였습니다. 이 기간 중 조금씩 호전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지요. 집회 당일 강사님께서 기도해 주실 때에는 ‘틱 치료’를 언급하셨는데, 그때 제 마음에 치료의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후 놀랍게도 틱장애가 사라져 일상이 너무나 편안하고 행복합니다.

“수술 후 유증으로 인한 통증이 사라져 지금은 잘 걷습니다”

카멜레쉬 나두 (28세, 인도)



8개월 전 사고를 당해 2차례 수술을 하였는데, 이후 걸을 때 다리와 등에 통증이 있어 잘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3월 13일 유튜브에서 환자를 위한 기도를 검색하다가 GCNTV HINDI를 발견하였지요.

저는 GCNTV HINDI 사무실로 전화를 하였고, 14일 은사집회에 대해 안내를 받아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강사님께서 환자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 제 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고, 그 뒤 다리와 등의 통증이 깨끗이 사라져 잘 걸을 수 있었습니다.

“발목 골절로 잘 걷지 못했는데 편하게 걷습니다”

레띠시아 까차이 (21세, 페루)



저는 사고를 당해 오른쪽 발목이 골절되어 잘 걷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은사집회 시 강사 이복님 원장님의 기도를 받을 때 뜨거움을 느꼈고, 기도가 마쳐진 뒤에는 발목이 저렸습니다. 이후 저렸던 발목이 점차 풀리더니 신기하게도 편하게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극심하게 가려웠던 피부 알레르기를 치료받았어요”

아유시 (13세, 인도)



피부 알레르기가 3~4주 전부터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부가 너무 가려워 견딜 수가 없어서 긁다 보면 그 부위가 더 넓게 번졌지요. 그런데 은사집회에 참석해 강사님의 환자기도를 받은 후에는 알레르기 증세가 완전히 사라져 전혀 가렵지 않습니다.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의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예배 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에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번영로 34 ☎ 041-881-7000, 010-3030-7025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 062-513-2468, 010-8888-072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 6길 30 ☎ 054-920-4512, 010-3343-1537
- 김해만민성결교회 경남 김해시 삼정동 43-15 메디파아 4층 ☎ 010-6218-0703
- 남포향민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 054-281-2468, 010-9773-7017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마산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30-6 ☎ 010-8741-2073
- 목포만민교회 전남 목포시 상동 비파로 135-1 2층 ☎ 010-6507-753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지도로 167-82 ☎ 061-452-7443, 010-3153-1723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사정서길 36 ☎ 055-353-9192, 010-9382-2073
- 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 051-805-3898, 010-9140-4194
- 사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엄사면 향한리 374 ☎ 042-841-0091, 010-7195-1099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만리공원길 7-1 3층(교동) ☎ 033-637-0271, 010-7733-1327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길 27 ☎ 070-4028-2515, 010-2536-2515
- 순천만민성결교회 전남 순천시 강평길 13 2층 ☎ 010-6306-9798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번영로 169번길 22 ☎ 041-546-1537, 010-2672-0244
- 여수만민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3길 11-2 ☎ 061-652-8311, 010-2325-1228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5길 57 1층 ☎ 010-5510-6300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 2길 6 ☎ 063-853-0675, 010-3637-0263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절길 30 ☎ 063-223-9991, 010-4202-1537
- 제주만민교회 제주시 절률 2길 32 해피하우스 701호 ☎ 064-712-0058, 010-2689-2332
- 진주문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길 17, 2동 3호 ☎ 055-852-5815, 010-9196-3927
- 천안만민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길 5 ☎ 041-577-7077, 010-3447-7077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가락길 71 ☎ 043-293-7077, 010-8291-7173
- 춘천만민성결교회 강원도 춘천시 옥산포길 17-7 ☎ 010-2090-7710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용산동 1210 ☎ 043-845-0617, 010-2447-9217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우빌딩 지하 ☎ 02-489-3766, 010-2201-0542
- 경기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 031-840-2906, 010-4710-9649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이설대천로 1177번길 12 ☎ 031-635-9103, 010-2201-0542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120 백세빌딩 10층 ☎ 032-863-9857, 010-561-7254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B/D ☎ 031-905-2419, 010-4710-9649